



# 오늘날의 프랑스 고등교육 - 우수성, 민주주의와 세계로의 개방 -

빠 스 깔 다 이 예 즈 - 뷔 르 중 |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학협력담당관

프랑스는 거대한 대학 국가이다. 1257년에 설립되어 그 역사가 700년이 넘는 소르본 대학의 명성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소르본 대학은 장-폴 사르트르(1905~1980)와 같은 가장 저명한 작가들과, 루이 파스퇴르(1822~1895)와 같은 가장 위대한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물리와 화학에 퀴리 부부(1903년과 1911년), 의학에 앙드레 로프, 프랑수와 자콥, 자크 모노(1965년), 화학에 장-마리 렌(1987년), 물리에 피에르-질 드 쟈(1991년), 조르쥬 사르팍(1992년), 클로드 코헨-타누지(1997년) 등 그 외에 다수가 있다.

모든 오래된 유능한 교육제도가 그렇듯이, 프랑스 고등교육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위 대학이라 불리는 것과 그랑제꼴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프랑스 교육기관의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역하기도 쉽지 않다. 이 글은 프랑스 대학의 역사와 조직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된 훌륭한 자료들이 있으며, 특히 정기수 교수가 쓴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프랑스는? 그런데 한국에서

는?』이란 저서를 참고할 만하다. 학생들을 위한 에듀프랑스 사이트([www.edufrance.fr](http://www.edufrance.fr))나 사실의 정의나 자료를 찾는 이들을 위한 매우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www.education.gouv.fr/stateval](http://www.education.gouv.fr/stateval))도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 고등교육의 최근 동향에 대해 다룰 것이며 혹은 교육의 세계화와 일반화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프랑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프랑스 교육제도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만인을 위한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양립시키고 세계로 개방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정체성과 자국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다.

## I. 민주주의와 수월성

세계의 다른 국가들처럼, 프랑스는 오늘날 모순적인 현실에 대처해야 한다. 지식경제에 바탕을 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중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선택적이고 우수한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이원적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에는 다수를 위한 대학이 있다. 대학 입학 선별과정은 어렵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만 있으면 되고, 많은 학생들이 바칼로레아를 취득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의 65%가 바칼로레아를 취득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대학 교육과정, 학사, 석사 특히 박사 과정에서는 선별과정이 엄격해진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석사,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대학 이외에 그랑제꼴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수 교육기관으로 매우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예를 들어,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등사범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지만 그중 약 백여 명이 입학해서 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명망 있는 그랑제꼴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단지 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는 재력과 역량이 있는 대학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시스템은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만 대학이나 입학준비 과정이 좀 더 긴 그랑제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는 공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 모든 대학과 많은 그랑제꼴이 국립 교육기관이다.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동안 학비는 들지 않는다. 고등사범학교나 파리공과대학과 같은 몇몇 그

랑제꼴은 학생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 대신 이 학생들은 여러 해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국가는 세입의 1/3을 공교육비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공교육을 고수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이다.

교육비가 들지 않는 공교육기관 이외에 시나 상공회의소 혹은 협회에 의해 설립된 몇몇 사립 그랑제꼴도 있다. 대부분은 경영이나 광고, 그래픽, 패션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가르친다. 고등상업학교, ESSEC, INSEAD와 같이 학비가 매우 비싼 기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립교육기관들도 가장 부유한 학생들만 선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장학금 혜택의 기회는 많다. 작년에 45만 명의 프랑스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 12만 명은 경영 분야의 그랑제꼴 학생들이었다. 파리 정치학 연구소는 최근 전체 학생 수의 약 25%에 달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도시 근교의 젊은이들과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 '소수자 우대정책(영어로서는 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교육의 수월성을 가능한 한 널리 확대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직업교육을 재평가하였다. 전국에 과학기술교육기관(IUT 단기공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명성 높은 직업대학교로, 아주 유능하고 노동 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단절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 학사학위가 최근에 설립되었다. 이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석

사과정을 밟고자 원하면 연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학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는 그들의 직업 경험을 인정하고 그것을 학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고등교육이 최고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다시 찾아내 교육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 교육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위를 따지 못하고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랑제꼴은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실망감을,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 정신과 대치되는 엘리트주의를 불러일으킨다. 국립행정학교나 고등광업학교 같은 교육기관은 일정한 특권계급을 형성하기도 한다.

어쨌든 모든 프랑스 국민이 그들의 요구와 재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교육의 필요성은 국민적 합의이다. 엘리트 교육기관들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대학과 그랑제꼴 그리고 직업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프랑스 교육제도의 다양성은 다양한 요구에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II. 프랑스 문화유산과 세계로의 개방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학은 시민들에게 프랑스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에는 언어를 비롯하여 문학, 미술, 과학 등 모든 창작물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역사는 필수과목이며, 고등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랑제꼴에 입학하거나 대학에서 구두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교양이라 불리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일반교양이란 넓게는 역사적 상식, 특히 프랑스 혁명, 20세기 초에 제정된 중요한 민주주의 법률, 세계 2차대전에서 나치에 대항하여 싸운 레지스탕스나 식민지해방과 같이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다.

그 이름이 말하듯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가치란 매우 광범위하다. 프랑스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다.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현재 거의 25만 명에 달하며,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교육은 외국학생들에게도 무료로 제공된다.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단지 그들의 학력을 증명할 학위만 있으면 된다. 학생과 연구원들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프랑스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확신하고 있는 프랑스는 자국의 교육제도를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로 개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언어의 다양함을 보호하면서 불어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우리는 또한 현실적이 되는 법을 알고 있다. 프랑스를 알고

“

프랑스 국민이 그들의 요구와 재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교육의 필요성은 국민적 합의이다. 엘리트 교육기관들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대학과 그랑제꼴  
그리고 직업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프랑스 교육제도의 다양성은  
다양한 요구에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불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불어를 해야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외국인연구원과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는 영어,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로 실시되는 교육을 늘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다른 언어를 통해서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불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보다 더 좋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고등상업학교(HEC)에서 MBA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학생 중 75%는 학업을 마칠 때쯤에는 불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학생과 교수들이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재정적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자국 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낼 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을 우선으로 25만 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프랑스 대사관이 프랑스 유학 홍보와 장학생 선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경영, 과학, 기술 분야가 현재 가장 선호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시대에 돌입하였다. 1998년 소르본 회의와 1999년 볼로냐(이탈리아) 회의에서 유럽을 하나의 대학 대륙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정과정이 시작되었다. 모든 유럽 국가의 교육체계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모든 유럽 학위는 그 명칭이 상관없이 다음의 세 단계로 분류된다. 학사 3년, 석사 2년 그리고 박사 3년이다. 각 학위에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되는 이수학점이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의 학생은 자국에서 학사과정을 시작해서 다른 국가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제 3국에서 석사학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국제이동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박사논문이나 박사 후 과정을 위해서는 이런 국제이동이 필수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공동예산에서 재정지원 자금을 마련해 놓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국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르본과 볼로냐에서 있었던 조정과정을 통해 이와 같이 해외유학을 통한 학점이수가 인정되고 학위 취득이 용이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심지어 유럽인이 아닌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자.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게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는 유럽의 여러 대학 사이의 공동 석사과정 수립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을 통해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의 초기 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나, 프랑스 학생들에게 외국 유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소르본과 볼로냐 회의 조정과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뿐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아시아를 보자면, 프랑스와 한국은 2000년 아셈-듀오(ASEM-DUO) 프로그램을 발기하였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를 재정적인 차원에서 양국이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아시아 학생이나 교수가 유럽으로 가면 반드시 한 명의 유럽 학생이나 교수가 아시아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이니 만큼 이 프로그램은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불 교류는 매우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양국 간에 이미 100여 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교류는 아직 전통적이고 불균형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로 향하고 있다. 2004년 프랑스 내 한국 학생들의 수는 6,500명에 이르렀다. 그 중 50%는 불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다. 반면 한국에 오는 프랑스 학생들은 100여 명을 넘지 않으며, 그 중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불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을 법, 경영, 과학과 공학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외국 학생 수용능력이나 기술력에서 미국과 비슷한 한국으로 더 많은 프랑스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방불 이후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총장협회간에 고위 협정이 체결되었다. 대학간 협정의 단일화 및 강화를 위해 업무팀이 구성될 것이다. 이는 초기에 영어로부터 시작되는 과학 및 경영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런 교류는 학위 취득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와 한국은 이수학점과 학위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불 공동학위를 설립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에게 적절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리의 국제기숙사에 한국관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한국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프랑스대사관은 2005년부터 프랑스에서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위해 우수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무대로의 개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학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우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 대학을 위해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프랑스 대학이 국립이고 교수들이 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파리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수많은 나라, 특히 한국에 있는 프랑스 학생들은 무엇보다 미국으로 가길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형태의 교육이 동일하고 하나의 언어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세계화에 적응하는 문제, 과학과 기술 교육 수준의 향상,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관건이 되고 있다. 프랑스 대학은 전 세계 국가, 모든 언어, 모든 문화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만 현재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 외국인 학생 수 : 220,000명 중 28,000명은 아시아 학생
-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 76,000명
- 대학생 중 60%가 석사과정 진입
- (학사나 석사)학위 소지자 중 60%는 이후 5년 안에 일자리를 찾음
- 매년 배출되는 10,0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2/3는 연구직이나 교수직으로 진출하지 못함
- 2003년에 16,000개의 연구 장학금이 지급되었음
- 교육을 위한 국민총지출 : 1,113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7.1%, 2004년 고등교육에는 189억 유로로 학생 1인당 평균 8,370유로(1,130만 원) 지출
-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107억 유로는 국가와 기업이 지불

### 〈유용한 자료〉

- 프랑스 내 대학교의 수 : 90개
- 프랑스 내 그랑제콜의 수 : 약 400여 개
- 프랑스 내 단기공과대학의 수 : 100개
- 2004년 프랑스 및 해외 영토 내의 학생 수 : 2,255,000명

### 빠스칼 다이에즈-뷔르종(Pascal DAYEZ-BURGEON)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하였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를 수료하였다. 고등학교 교사, 파리정치학연구소 부교수, 참사원 부판사, 교육부 유럽담당부서장, 외무부 대학협력담당관을 거쳐 현재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학협력담당관이다. 주요 저서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역사』 등이 있다.